

베델교회 BETHEL CHURCH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샬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추수감사주일예배 Thanksgiving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감사하는 성도여(찬306/새587장)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주용중 집사 2부/이제석 집사 3부/황대경 집사 4부/박창희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감사드려(Dennis Allen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세례/입교식(3부) Baptism & Confirmation .....All together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요한복음(John) 7:1-52 .....All 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11:17-27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궁예(12)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38) "I AM" 부활이요 생명이니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오직 예수 뿐이네, 목마른 사슴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어느 할아버지의 행복

A Grandfather's Happines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갓 태어난 손주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아기를 놓고 쩔쩔매는 엄마 아빠된 자녀를 보면 또 안쓰럽고, 또 어찌 애를 키워갈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보다, 나와 아내가 애를 하나 둘도 아닌 넷을 키웠다는 것이 힘이 되나 봅니다. 애 하나 놓고 육아에 지쳐 있는 딸, 아들이 요즘 엄마에게 자주 묻습니다. "엄마는 애 넷을 어떻게 키웠어?" 그때마다 빙긋이 웃는 아내는 답을 말합니다. "엄마가 키웠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 키웠지..." 육아의 묘법을 기대했다면, 싱거운 대답이겠지만, 정답 중의 정답입니다. 24, 25살에 결혼하여 애가 애를 낳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 키운 네 자녀들이 이제는 엄마 아빠가 되어 쥐방울만한 손주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기만 하고, 손주들이 아플 때 직장도 쉬면서 돌보는 모습을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은 모성애, 부성애를 우리 자녀들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우리 자식 넷을 키울 때는 실감이 나지 않다가, 손주들을 보면서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멀리서도 안기겠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주변의 모든 것을 올스톱이 되고, 달려오는 손주들 안기 위해 두 팔 벌리고 함박웃음에 입도 크게 벌리는 할아버지 모습은 정지된 화면입니다.

갑자기 우리 아들 어렸을 때가 기억납니다. 대학생들 데리고 단기선교 갔다가 석 주 만에 돌아오는 아빠를 맞이하는 아들이 나를 보고 잠시 숨을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아들을 야단칠 때가 되면 "나를 보고 너무 좋아서 숨도 못 쉬던 아들인데..." 하면서 야단대신 용서의 팔을 벌려 안아주었습니다.

그 용서의 팔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손주들을 향해 또 활짝 펴집니다. 우리 손주들도 언젠가는 할아버지 오랜 만에 보면, 너무 좋아서 숨을 못 쉬는 날도 오겠지 싶어서 오늘도 어디서 달려올 손주들을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습니다. 달려오기만 하면,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선물을 주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현장을 달려 나온 베델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활짝 열린 두 팔 안으로 달려가 와락 안기는 예배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기쁨의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적실 것을 믿습니다.

When I see my newborn grandchildren, I feel amazed, yet also a bit sorry for them. Seeing my children—now mothers and fathers—struggling and frazzled after having a baby makes me feel sorry for them too. I also worry about how they will manage to raise their kids. However, even more than we worry for them, it seems our children draw strength from the fact that my wife and I raised not just one or two, but four children. My daughter and son, exhausted from raising just one child, often ask their mother these days, "Mom, how did you raise four kids?" Whenever they do, my wife smiles gently and answers, "Did I raise you? God raised you all..." If they were expecting some secret parenting trick, this may be too simple of an answer, yet it is the truest answer of all. Because we married at 24 and 25 people used to say, "kids having kids." Seeing our four children who now have become mothers and fathers raising our adorable little grandchildren makes God's grace feel nothing short of miraculous. And when I see them taking time off work to care for their sick children, I realize that our children possess maternal and paternal love without being taught.

The saying that something is "so precious that you wouldn't feel pain even if you put it in your eye" didn't really sink in when we were raising our four children, yet it feels so real as I watch my grandchildren. When my grandchildren begin to recognize thei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nd come running from distance to be held, everything around me stops and the image of a grandfather opening both arms and beaming with a wide, smile becomes frozen in time.

Suddenly, I remember when our son was little. After leading college students on a short-term mission trip and returning home after three weeks, I saw my son looking at me and, for a moment, he was unable to catch his breath. For a long time after that, whenever I needed to scold him, I would think, "That's the son who was so happy to see me that he couldn't breathe..." and instead of scolding him, I would open my arms in forgiveness and hugged him.

Those arms of forgiveness now open wide once again toward my grandchildren running toward me. Hoping that one day our grandchildren will also be so thrilled to see their grandfather after a while that they'll lose their breath. I find myself looking around today too, wondering where they might come running from. As soon as they run over, I'm ready to hand them the gifts I brought back from Korea.

I believe that the Bethel congregation who ran to today's worship service also came into the arms of God the Father with that same kind of heart. I pray that this worship time will be a moment when we run into the wide-open arms of our God the Father and embrace Him tightly. At that moment, I believe the grace of our God the Father, who "cannot contain His joy," will abundantly soak our souls.



너무 궁금한 예수님 이야기 -12-

주일설교시리즈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1-52)

적용하기

1.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이 명절을 지킨 의미를 참고구절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 (7:2, 7:37, 참고/레 23:42-43)

2.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요 7:5).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혹시 나도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은 환영하면서, 내 생각과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3.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요 7:37). 요즘 나의 마음을 가장 목마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주로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4. 광야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얻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여전히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으려 하는 은혜는 없습니까?(참고/고전 10:4, 요 2:19, 21, 겔 47장, 계 22:1-2)

5.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요 7:38-39). 이번 한 주, 내 주변의 목마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 **적용찬양:** 오직 예수 뿐이네, 목마른 사슴

예배
수요저녁예배

한 주의 중심, 마음의 중심







올 한 해 수요예배팀으로 섬기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찍 와서 장비를 점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흐름을 살피고 성도님들이 드실 차와 간식을 준비하는 손길도, 작은 일 하나까지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상 화면을 준비하고, 조명으로 예배당을 채우기도 하며, 입구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스탭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예배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보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놓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화면을 살피고, 조명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챙기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인가를 잘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열심만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이라는 특별한 수요예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황모세 목사님과 함께 'KINGDOM'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8주간의 수요예배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주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수요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의 중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쁘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이는 자리에서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든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모든 손길에 감사하며, 수요예배가 섬기는 사람과 예배드리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인주 집사

사역 간증
예향

우리 교회의 숨은 천사들



지난 8월, 무릎 감염 수술을 받고 요양시설에 머물면서 잊지 못할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병약한 지체들을 위해 2주일에 한 번씩 정성껏 마련한 음식 한 상자를 보내주시는 예향팀 봉사자분들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이분들의 조용한 헌신은 내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시는 음식은 얼마나 정갈하고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알찬 구성과 세심한 준비에서 음식을 받는 이들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 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요.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소리 없이 집집마다 배달해 주시는 분들 또한 우리 교회의 숨은 보배입니다. 상자를 열 때마다 음식을 마련한 손길과 그 음식을 내게까지 전해 준 손길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받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요양시설에 머무는 동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찾아온 음식 한 상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다정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친 몸을 돌보는 양식이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절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 귀한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베푸신 사랑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도 감사의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고,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정성껏 담아 보내주시는 음식 한 상자에서 나는 교회의 따뜻한 품과 주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시는 예향팀 봉사자분들과 음식을 전해 주시는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 따뜻해지고,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황성철 목사

추수감사절 특집
감사의 글

기쁨과 은혜의 한 해, 오직 감사



기쁨은 함께 나누어 더 큰 기쁨이 되고, 어려움은 나누어 짊어져 위로와 힘이 되어 준 오병이어 셀목자님과 셀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나눔이 풍성한 기적이 되었듯, 서로를 향한 사랑과 진심 어린 기도, 따뜻한 섬김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권두경 집사

가끔씩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 말고, 잘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번 해에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선교를 다녀오면서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듯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권미숙 권사

올해 초 '주변을 믿음의 사람들로 채우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온 가족이 예배와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부활절 울림 예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전도폭발로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고, 남편과는 운동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본업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몸도 신앙도 성장하며 온 가족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세진 집사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성을 다해 가르치시고 섬겨 주신 수고와 헌신 덕분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사랑과 섬김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혜진

지난 한 해 교회의 여러 사역에 봉사하며 섬김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 간에 오가는 소식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박영선 집사

저희 온 가족 삼대가 함께 베델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매일 차로 오고 가는 많은 길 위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 온 가족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자인 집사

지나온 순간순간은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이라 생각했지만, 올해를 돌아보니 남는 것은 오직 감사뿐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수많은 감사 제목 중에서도 울림예배와 수요 말씀여행,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부어 주신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때에 맞는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도, 기쁜 시간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걸어 주신 주님.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혜림 집사

비, 바람, 햇살을 견뎌내고 맺혀진 내 안의 작은 열매들을 돌아봅니다. 계절마다 쉽게 흔들리던 내게 버팀목이 되어 준 십자가, 그 은혜로 영글어진 결실들이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특별히 베델의 예배는 올 한 해도 나의 가장 큰 생명의 수확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섬김으로 함께 세워 온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쉼이 있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베델의 가을은 올해도 변함없는 내 감사의 열매입니다.

홍소연 권사

아침마다 눈을 뜨면 선물 같은 하루를 변함없이 주셨지요.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척에 주셨고, 보석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 같은 한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황리나 권사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딸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편의 건강을 다시 검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것과 선교를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저의 영적 신분에 대한 확신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삶의 방향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황영미 권사

믿음의 고백

첫사랑의 설렘 같은 말씀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제 인생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교제하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주일, 세 번의 응답을 통해 베델교회에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가는 '너는 그냥 그곳에 서 있기만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 성적표인 이 단호한 말씀 앞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고, 그저 충격과 놀라움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시작하는 인생의 후반전을 베델의 여러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참여하며 말씀 위에 세워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와 교회를 찾던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사랑의 설렘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듣기 어려운 환경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매 주일 첫사랑의 설렘으로 예배를 기다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시는 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시는 곳에서 함께 웃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매 주일 말씀과 세심한 배려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의 기쁨과 행복이 김한요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넘치도록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델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으로 묶여져 주님이 세우신 푯대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게 하실 주님! 지난 50년간 선진들이 드린 기도와 우리의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완성을 이루고, 베델의 사명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사명의 통로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 베델의 모든 지체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숙 권사

2026년 가을 세례/입교식

▶ 일시/장소: 11월 22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오늘 3부 예배에서 세례 및 입교식이 거행됩니다. 세례와 입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신앙고백입니다. '나'라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가는 사명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이 귀한 예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와 처음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온 교회가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자〉 총 25명

- **BYM(20명): 김리나(Isabelle), 김새론(Shaeron), 김수아(Sophie), 김예설(Katelynn), 김예원(Addison), 김재겸(Ian),김준휘(Jayden), 배다니엘, 변연호(Lydia), 변환호(Luke), 서예림(Kayla), 선찬영, 오민준(Connor), 이세훈(Jayden), 이유빈(Hailey), 이하온(Olivia), 정태이(Tay), 최영훈(David), 최유리(Emily), 홍라희(Helen)**
- **CIM(2명): 강하람, 홍현오**
- **예삶(2명): 최은총(Samuel), 최지수**
- **성인(1명): 조세훈(Kevin)**



〈세례자〉 총 22명

- **BYM(5명): 김민찬(Justin), 박주하, 손예린, 이예지(Adele), 최원보(Nicholas)**
- **CIM(2명): 이지안, 이지훈**
- **예삶(5명): 김승현, 김예슬, 박효빈(Julie), 이상영(Joseph), 최지원**
- **JM(1명): Mino Iizuka**
- **성인(9명): 강정희, 계명균(Andrew), 남춘희(Chunji), 양현경(Annie), 이동건, 이유진, 임은정, 전인숙, 정훈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헌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삶채플: **최요셉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프리실라 레페브리에이 전도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삶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한국학교 봄학기 등록

자녀의 뿌리와 미래를 함께 키우는 베델한국학교가 2026-2027학년도 봄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부모님은 물론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을 더욱 가깝게 느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베델한국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나이와 한국어 수준에 맞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골고루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다양한 수업과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한국어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울리며 보내는 시간도 한국학교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를 친구들과 사용해 보고, 명절 행사와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더라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어느새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한국학교는 이번 봄학기에도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꾸준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봄학기 등록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등록 안내와 신청 방법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학생 조기등록: 11월 14일(토)-11월 29일(주일)**
▶ **신입생 및 일반등록: 11월 30일(월)-12월 13일(주일)**
▶ **문의: 황수정 집사 (949)562-5262, 윤주원 장로 (949) 892-9512**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12월) I	11/29:	①부-장지봉	②부-주진철	③부-홍승평	④부-정예린
	12/6:	①부-최재윤	②부-이창열	③부-황인수	④부-정용익
	12/13:	①부-탁정호	②부-최두현	③부-최재호	④부-채지우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1,12월) I	11/28: 전승윤	12/5: 김종곤	12/12: 정승우	12/19: 진정훈	
강단꽃(11,12월) I	11/22: 강정선, 서은숙, 윤주원, 주정숙	11/29: 이종선, 이미옥	12/6: 엄금연, 이지민	12/13: 왕예진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I 의사-이원섭(한의과), 간호사-박필연　　다음주 I 의사-이강민(임상병리), 간호사-황미례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I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I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I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I**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I**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I 허익현(김영중) **몽골 I**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I** 성결(양선) **브라질 I**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I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I** 박민수(이순영) **일본 I**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I** 김인성
코스타리카 I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I** 황광인(황영숙) **태국 I**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I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I**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I**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푸른초장의 집, 한미가정상담소, 헤브론병원,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 I**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I**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린 추수감사 헌금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에는 '추수감사헌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세례/입교식** 오늘 주일 3부에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자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 세례/입교자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6면 참고)

◆ **성찬식** 성찬식이 다음 주일(29일) 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교인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 주간 수요예배 및 새벽기도회 안내** 추수감사절 주간의 수요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주 수요일(2일)은 연말 특별 저녁 부흥회로 이어집니다. 추수감사절 주간 새벽기도회는 평소처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연말 특별 저녁 부흥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받은 믿음과 결코 헛되지 않을 사명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7 임직자 선출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같은 시간에 교회학교 집회도 있습니다.
일시/장소: 11월 30일(월)–12월 2일(수) 저녁 7시, 본당
강사: 이혜진 목사(아틀란타 벧엘교회 담임)

◆ **OICOS 예배**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온 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임직을 위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OICOS 예배 일시/장소: 12월 5일(토) 오전 6시, 본당
OICOS 예배 특송: 올해 2026년 임직자들(사역장로, 안수집사, 사역권사)

◆ **하반기 셀 종강** 2026년 하반기 셀모임을 통해 나눔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셀목자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반기 셀모임은 11월 22일(주일)이 마지막 모임입니다.

◆ **기도사역 연합기도회** 골방기도, 레위기도, 두드림, 기도편지로 동역하시는 분들, 모든 성도님들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11월 28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오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K-12 크리스마스 합창단**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K–1,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BYM, CIM)
연습 날짜: 11월 22일, 29일, 12월 6일, 13일, 20일(총 5회)
장소/참가 신청: 비전채플, QR 코드

◆ **베델 사진관 운영**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각 예배 시간 후 코트야드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가족과 셀 목장,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감사의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상곤 장로 (949)678–4004**

◆ **정기 제직회 및 임직선거** 12월 5일(토) OICOS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본당에서 정기 제직회(임직자 투표, 2027 예산안)로 모입니다.
*12월 12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에는 교인 총회로 모입니다.

◆ **큐티인 12월호 판매**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따듯한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B2N 2027 연합기도회 최종 마감** 모집이 최종 마감되었으며 참가자와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창이 만들어졌으니,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라며, 행사에 대한 정보공지와 문의가 있으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 **UC Irvine 'Sounds of the Season' Choral 콘서트**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UCI 합창단의 특별 콘서트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Irene Messoloras 교수의 지휘 아래 UCI Chamber Singers와 Concert Choir 등 200여 명의 단원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오니, 음악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장소/주최: 12월 3일(목) 저녁 7시 30분, 본당, UC Irvine Claire Trevor School of the Arts

◆ **사무실 휴무 안내** 추수감사 주간 11월 25일(수)–27일(금) 교회 사무실이 휴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긴급연락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주은 간사 (669)699–8228, 조동현 목사 (949)406–1388**

◆ **축하해 주세요**
정영훈, 강주희 집사 가정에 아들 로이(Roy)가 11월 12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최영희 권사님(권순호 장로의 모친, 손미미 권사의 시모)께서 11월 15일(주일)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종옥 성도님(박승희 집사의 부친, 박정현 집사의 장인)께서 11월 16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본당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Very Curious SERMON SERIES

JESUS STORY -12-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Whoever is Thirsty
(John 7:1–52)

Apply to Life

1. What is the Jewish festival that is the background for today's passage?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answer what it means to observe this festival. (7:2, 7:37, Ref: Lev 23:42-43)

2. Jesus' brothers did not believe in Him even while living with Him (Jn 7:5). Is it possible to go to church for a long time and not truly know Jesus? How might such a state show up in your own walk of faith? Could it be that you also welcome Jesus who fulfills your plans, while feeling burdened by Jesus who tells you to change your thoughts and your life?

3. Jesus invited, "Let anyone who is thirsty come to me and drink" (Jn 7:37). What is making your heart most thirsty these days? Where are you mainly running to in order to quench that thirst,?

4. What does the fact that Christ, the Rock in the wilderness, gave the Holy Spirit through the cross and resurrection teach us about how we receive grace? Is there grace you are still trying to seek through your effort or merit? (Ref: 1Cor 10:4, Jn 2:19, 21, Ez 47, Rev 22:1-2)

5. Jesus promised that rivers of living water would flow from those who believe (Jn 7:38–39). This week, who is someone that is thirsty around you? What small thing can you do so that the life of Christ flows to that person?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Only Jesus is for Me, As the Deer